



돌부처 이창호 바둑 통산 '승률왕'

작년말 현재 1,792전 1,380승 412패 77.1% 1위

조훈현 71.1% 2위 ... 유창혁 3위, 서봉수 4위 순

‘돌부처’ 이창호(사진) 9단이 1천국 이상 돌파한 한일 프로기사 중 가장 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성기 이후 다소 전력이 주춤해가는 프로기사들의 패턴을 감안한다면 이창호는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기원이 발표한 1천국 이상 프로 기사들의 승률 비교 분석을 살펴보면 집계 끝난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이창호는 1천792전 1천380승 412패로 통산 77.01%의 승률을 기록했다. 이창호는 올해에만 8월 현재 다승(44승 12패) 및 승률(78.57%) 1위를 질주하고 있어 당분간 승률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창호 이전에 바둑계를 휩쓸었던 조훈현, 유창혁, 서봉수 9단이 1천승 이상씩을 거두며 2~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2천500국을 달성한 조훈현은 통산 1천770승 9무 72패(승률 71.1%)를 기록해 2천500국 이상 기사 중 승률 분야에서는 겨를 상대가 없다.

서봉수의 뒤를 이어 동갑내기 라이벌인 양재호, 최규형 9단이 5, 6위를 이었으며, 서승욱, 김동업, 강훈, 김수정 9단 등 왕년의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각각 7~10위를 차지하면서 과거의 활약을 과시했다.

이밖에 1천국 이상을 둔 기사 가운데 김인, 장수영, 김일환, 정수현, 하찬석, 황원준, 백성호, 윤기현, 허창희 9단 등이 5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00국 이상 1천국 미만 기사들 중에는 지난해 전자랜드배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강동윤 7단이 361전 259승 1무 101패로 승률 71.9%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국내 랭킹 1위인 이세돌 9단으로 952전 677승 1무 274패(71.19%)로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78%의 승률을 기록했던 이세돌은 올해 1천국 달성과 함께 이창호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돌에 이어 지난해 연간 최다 대국, 최다승 기록을 수립한 목진석 9단이 3위를 차지했다. 목진석 역시 올해 1천국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 선배들과의 승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1천국 미만 프로기사들은 1위 강동윤

과 10위인 이영구 6단이 고작 3%가량의 승률 차이를 두고 있어 추후 성적에 따라 순위 변동이 심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원이 같은 기간 발표한 승률 랭킹에 따르면 1천국 이상을 소화한 프로 기사 중 1천352전 911승 437패 4무를 기록한 요다 노리모토 9단이 승률 67.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창호에 비해 10%가량 저조한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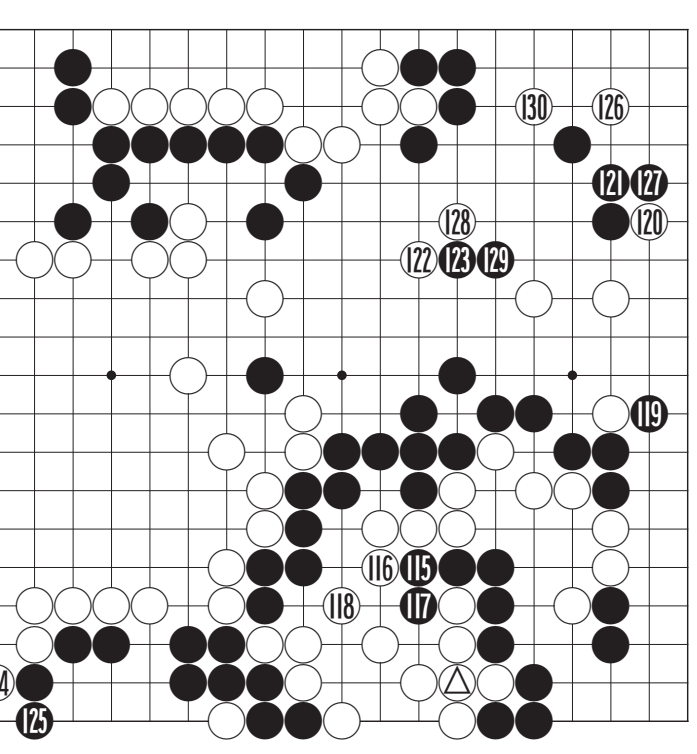
일본은 요다 노리모토에 이어 고바야시 사토루 9단이 2위를 차지했고, 1위에서 10위까지의 승률차이가 고작 2%밖에 나지 않았다.

일본에서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조치훈 9단은 총 1천955국을 두어 1000위대 기사 중 가장 많은 대국수를 기록했지만 승률은 9위에 그쳤다.

100국 이상 1천국 미만에서는 신에 기사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이마야 유타 7단이 258전 196승 62패로 승률 76%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같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강동윤 7단과 승률면에서 다소 앞서 있다.

한 수의 차이
개인전 준결승 2국 8보 (115~130)
白 김영수 5단 黑 방재혁 5단
(전남고사회) (창이유동)



백 트로 이은 것은 백 대마의 삼을 도우면서 우하귀 흑 대마에 가일수 하기를 강요한 것. 그런데 방재혁 5단은 117까지를 선수하고 나서 과감하게 손을 빼 119로 져버린다.

이 수가 승부수였는데 도중 117은 '참고도 1'의 흑 1로 끊는 수를 얹어 대박수였다. 백 2로 받으면 흑 7까지 합집고 없어서 백 대마를 손힐 수가 없었다.

이것은 중대한 차이로 이 수가 있었으면 한 수의 차이가 난다.

흑 119에 돌이 놓이자 우변의 백 석점이 고사지경에 이르렀다. 강심장인 김영수 5단도 이때는 안색이 굳어져 체 120으로 붙여 수단을 엮고 보더니 여의지 않자 122로 사각에 나선다. 모처럼 역전의 찬스를 잡은 방재혁 5단은 형세가 좋아지자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서 조심스레 129로 후퇴했는데 이 수로는 '참고도 2'의 1로 되갚힐 찬스로 5까지 엮으면 흑 우세지만 형세역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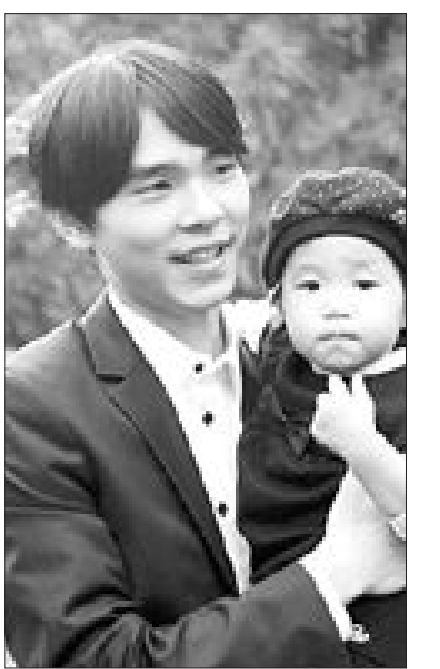
방재혁 5단이 주춤거리지 거꾸로 김영수 5단이 빈틈을 비집고 130로 두어 역승을 노리고 있다.

(오규철 9단·본부 바둑해설위원)

‘이세돌 천하’ 11개월 연속 랭킹 1위

목진석, 박영훈 제치고 생애 첫 3위에 올라

류동완·박지은, 초단·女 기사중 최고 순위



한국 프로기사 랭킹 1위인 이세돌 9단이 지난 2일 제13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 오픈 본선이 열린 대전 삼성화재 연수원에서 딸 허림(만1세)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이버오로 제공)

2008년 9월 한국 랭킹 순위

순위	기사명	랭킹 점수
1위	이세돌	1만4천783
2위	이창호	1만4천123
3위	목진석	1만2천670
4위	박영훈	1만2천221
5위	조훈현	1만1천988
6위	강동윤	1만1천914
7위	임성진	1만1천797
8위	홍성식	1만1천686
9위	박정삼	1만1천590
10위	한상훈	1만1천386

‘이세돌 천하’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 이세돌 9단이 2008년 9월 한국랭킹에서 11개월 연속 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세돌은 지난해 4승2패의 성적을 거뒀다. 제4회 도요타텐소배 8강 및 2008한국바둑리그 본선과 제4기 십단전 본선 등에서 승리했지만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지 못해 지난해 보다 45점 하락한 1만4천783점의 랭킹 점수를 기록했다. (표참고)

랭킹 2위 이창호 9단은 제5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에서 목진석 9단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며 389점 오른 1만4천123점으로 이세돌과 점수차이를 660점으로 대폭 좁혔다.

이세돌과 이창호는 9월에 제13회 삼성화재배 본선 및 제6회 응씨배 준결승전 등 굵직한 세계대회 본선을 치를 예정이라 이 대회에 승패에 따라 순위 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응씨배에서는 두 기사가 결승 진출을 놓고 준결승 3번기를 펼치며 대 랭킹 변동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랭킹 10위권 내에선 최근 주춤하고 있는 박영훈 9단을 밀어내고 목진석 9단이 랭킹 3위에 올라 있다.

“나도 프로기사”

대전 지역 연구생 출신

황진형 '입단대회' 통과



또 한 명의 새내기 프로기사가 탄생했다. 한국기원은 5일 ‘최근 마무리된 지역 연구생 입단대회’에서 황진형(19)이 우승을 차지해 단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원은 지난해 18일 제9회 지역 연구생 입단대회 1차 예선전을 시작으로 지난 2일 최종 본선전을 열었다.

황진형은 본선전에서 김지원에 승리하며 리그전 2승1패를 기록, 이흥민과 동률을 이뤘다. 동률자 재대국에서 이흥민을 상대로 306수 만에 2집반승을 거두며 입단의 기쁨을 누렸다. 황진형 초단의 입단으로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는 총 232명이 됐으며 이중 초단은 24명이다.

황진형 초단은 대전 지역 연구생 출신으로 7살에 바둑을 처음 배웠으며, 현재는 안국록 7단의 지도를 받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부동산 강박계의 기부세! T.062)227-6666

대중법률경매(주)

113호 011-646-2226

지역	소재지	면적(㎡)	잔여기간	최저가	비고
서울	신수동	471	783년	4천2백	한일외국부
서울	신동	585	487년	3천8백	도곡
경기	송탄	841	72년	7천2백	
경기	수원	3269	29년	2천4백	보통주택 상용부
경기	수원	11798	30년	13억	수원사내
경기	신원동	3621	897년	39백	최고의 부지
경기	전	313	191년	7천8백	경수부
경기	영등포	883	72년	5천2백	충무로역

대승공인중개사

062)954-7700, 010-9468-7959

수원지구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토지매매: ▶수원지구 333-1(범의변경가능) 60미터 대도면 상업용지, 3면도로 주차정지면 720㎡ 3.3㎡당 600만원
▶수원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정문 입구 상업용지 500㎡ ㎡당 210만
▶수원지구 단밀방형 170세대 정문앞 이주 지대지 330㎡ 3.3㎡당 450만원
▶광안구 수완동 35㎡ 대도면 자연녹지 답 1.762㎡ 4.23㎡ ㎡당 70만(분할가능)

노들메디컬센터 임대분양

▶수원지구 중심상권
- 지하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약국, 전시장, 안방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 2~5층: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임대중(평수 다량)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수원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수원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합동공인중개사

011-646-3393, 010-8675-6200

수원지구 4000세대 독점상권

아파트 상가 매매 및 임대

입점시기: 2009년 3월 ~ 12월 (지금 준비하십시오)

권장업종: 매트/제과점/미용실/세탁소/문구점/피자/김밥나라/청과/정육/차인호프/택집/건강원/안경점/편의점/학원/병원/약국

평수: 60평/40평/25평/13평/9평

매매가: 7000만원 ~ 8억2000만원

임대가: 3000만원 월세 80만원, 2억원 월세 300만원, 보증금과 월세 전화 조정 가능함.

대금납부 방법: 계약금 지불후 상가 입점시 잔금납부, 용자가가능함, 방문상담 환영합니다